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 주거·상업 복합형 개발 추진

2019년 고려시멘트와 공동 용역 개발 모델·타당성 조사 보고서 "수익률 등 고려 복합형 합리적"

장성군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을 풀이갈 실마리를 찾고 있다. 장성군은 (주)고려시멘트와 공동 추진해 온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모델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최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 자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흥기범·박을성 (주)고려시멘트 부사장, 조윤준(조산대), 김항집(광주대) 교수, 장성읍삼거리·황룡면 월평리 4리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지난 2019년 부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용역을 착수해 최근 마무리했다. 대상 지역은 장성을 단광리, 황룡면 월평리 일대 고려시멘트 부지 32만㎡로, 용역비 등 2억원은 장성군과 (주)고려시멘트가 절반씩 부담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려시멘트 부지는 주거형, 산업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수익률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복합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용역사인 평화엔지니어링 측의 설명이다. 복합형은 주거와 상권, 관광휴양시설 등이 조화롭게 조성되는 부지개발 형태다. 최종 보고회에서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고려시멘트는 부지 개발 의지가 분명하고, 지금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장성군 관계자,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한 단계로 장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부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기반 시설은 장성군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조윤준 조산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한 다양하고 특화된 미래형 주거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맞이한 최종 보고회는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라는 장성군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장성군민의 염원과 혁신을 바라는 고려시멘트의 의지를 모아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공장 부지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 개발모델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함평군이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운영한 홍보관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나비축제·국향대전 홍보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우수상 함평나비대축제(4월28일~5월7일)와 대한민국 국향대전(10~11월)을 앞둔 함평군이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함평 관광자원을 알렸다. 함평군 이번 박람회에서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함평군은 지난 7~9일 서울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홍보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광산업 관계자(바이어)와 일대일 상담도 추진했다. 축제박람회는 전국 지역축제를 한자리에 모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새로운 축제 동향과 분위기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은 지난 7~9일 서울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홍보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광산업 관계자(바이어)와 일대일 상담도 추진했다. 축제박람회는 전국 지역축제를 한자리에 모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새로운 축제 동향과 분위기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편백숲 우드랜드·탐진강 활용 장흥군 웰니스 관광 집중 육성

탐진강과 편백숲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닌 장흥군이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미래 유망 관광산업으로 떠오른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치유 관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흥지역 대표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 4년 연속 뽑혔다.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우드랜드 숲과 연계해 '마음 숲'을 주제로 한 다양한 치유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1급수 수질을 자랑하는 탐진강은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흥군은 천연 전통을 이어온 발효차 청태전과 선종 9산문의 천년고찰 가지산 보림사를 활용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방문객들이 '웰니스 관광'의 하나인 치유 체험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한 명상 치유 관광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체 의학 관광을 소재로 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머니 품과 같은 장흥은 웰니스

관광 시대에 적합한 건강과 치유의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현대인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chunghui@kwangju.co.kr

'나주밥상 브랜드화' 본격화...맛집 22곳 지정

100곳 목표...먹거리 명소화 나주시가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맛집 22곳을 1차 지정했다. 맛집 지정은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있게 즐겨주는 나주밥상'을 비전으로 한 먹거리 명소화 전략으로 추진됐다. 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나주밥상 맛집 1

차 지정 외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업주들은 이 자리에서 나주밥상 맛집 실천 서약을 통해 나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밥상', '안심밥상', '배려밥상' 실천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시는 맛집 지정 업소에 대국민 BI(Brand Identity) 공모를 통해 선정(상표특허출원)된 나주밥상 지정패를 교부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차 지정 외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업주들은 이 자리에서 나주밥상 맛집 실천 서약을 통해 나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밥상', '안심밥상', '배려밥상' 실천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시는 맛집 지정 업소에 대국민 BI(Brand Identity) 공모를 통해 선정(상표특허출원)된 나주밥상 지정패를 교부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나주시 '도시민 농작업 참여자' 연중 모집

농촌인력 증개센터 본격 가동

"귀농 사전체험 통해 농사일도 배우고 수익도 올리고."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원활한 농작업 인력 수급을 위해 '도시민 농작업자 모집'에 나섰다. 나주시는 연중 농작업 인력 확보를 위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업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인력 증개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농촌인력 증개센터에선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신청을 연중 받는다.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은 사전 농촌 체험을 통해 다양한 농사일을 미리 배울 수 있다. 여기에 농촌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도시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힐링체험에 이어 알찬 수업까지 올릴 수 있어 일석삼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농작업 체험은 농작물 관리·수확 등 농작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종식시간 1시간과 오전·오후 휴식 시간 30분이 주어진다.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교통비 최대 1만원, 농작업 도구, 상해보험료 무료 가입,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임금은 농작업 숙련도에 따라 당일 9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을 지급한다. 도시를 벗어나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내고 농촌의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도시민 농작업 체험 참여 문의는 '나주시농어업협회사(http://ncaf.co.kr/061-336-3472)'로 하면 된다. 나주시 힐링 여행정보는 도시민 농작업자 모집 업무 홍보를 대행하는 '나주시티'(http://www.najusiti.com/)에 접속하면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정남진산업고, 전남기능대회 싹쓸이 수상

자동차 차체수리 금·은·동·우수상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순천공고에서 열린 '2023년도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에서 자동차 차체수리부문 금·은·동 및 우수상을 싹쓸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계자동차과 학생 7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학년 정태성(금), 2학년 구강현(은), 3학년 정상진(동), 3학년 양원진(우수) 학생이 각각 입상했다. 정태성 군 등 입상자들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정남진산업고는 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2010년 도부터 14년 연속 자동차 차체수리 전문을 제패하며 기능인 양성 교육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정남진산업고는 2019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전남 지역 최초의 육군 기갑조종분야 군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 관련분야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2022년 군특성화 2기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2023년도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에서 자동차 차체수리부문 금·은·동 및 우수상을 석권한 학생들이 박미옥(뒷줄 가운데) 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2023년 군특성화 3기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9.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기로 유명하다. /장흥=김용기 기자 chunghui@kwangju.co.kr

'맛의 도시 강진 육성'...3대 대표 음식 공개

용역 결과 보고·포평회

'토하것 비빔국수', '한우 육회 떡볶이', '표고버섯 육전·덮밥'... 강진 대표 먹거리가 이월원 셰프 손을 거쳐 '맛의 도시' 강진을 알리는 음식으로 거듭났다. 강진군은 최근 지역 한 음식점에서 '맛의 도시 강진 조성사업 용역 결과 보고·포평회'를 열고 3가지 강진 대표 음식을 공개했다. 이날 포평회에는 강진군과 참가 음식점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은 지난 1월부터 지역 음식점 5곳을 선정하고 인기 요리사 이월원씨와 맞춤형 조리법 전수과 상담을 진행했다. 포평회에는 '토하것 비빔국수', '한우 육회 떡볶이', '표고버섯 육전·덮밥' 등 3가지 음식이 출품됐다. 강진군은 포평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보완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맛의 도시 강진 육성'을 민선 8기 60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한우 육회 떡볶이(왼쪽)와 표고버섯 육전.



<강진군 제공>